미스코리아와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

미스코리아 진·선·미 출신으로 결성된 자원봉사단 '녹원회' 회원 8명이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옥외 무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다. 이날 자선행사 수익금은 다음 달 4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식에서 자선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 재추진 갈등 증폭

건축심의 통과 … 인근 상인들 강력 반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이 재추진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르면 2010년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초까지 개점한다는 계획이지만, 인근 상인들은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광주시 남구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달 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주월점 신축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홈플러스는 백운광장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9천㎡ 규모의 매장 신축계획을 제출했고, 남구는 홈플러스 측에 신축 부지 내 1개 도로 신설과 인접한 4개 도로 확장 후 구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0년부터 광주시에 지상 7층, 5만3천㎡(연면적)규모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시가 남구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불허하자 규모를 대폭 줄여 남구에 심의를 신청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3만㎡ 이하는 구청 심의로 건축이 가능하다.

남구는 홈플러스 측이 광주시와 신축부지 내 시유지(1천900여㎡) 매각 문제를 완료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법정요건을 갖춘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이 시유지 매입을 요청해 오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유지 매입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홈플러스는 총 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1년 초까지 광주 주월점을 개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유지 매각 문제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부지 인근 무등시장 상인회 황인술 회장은 "홈플러스 개점은 무등시장 내 130개 점포 상인들과 무점포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상인들의 입장을 모아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을 죽이는 것은 물론 지역 자본 외부유출, 지역 농산물 외면 등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개발지원팀 박재열 과장은 "홈플러스는 10년 전부터 300억원을 투입해 백운광장 인근 부지를 매입, 개점을 준비해 왔다"며 "지역상인들의 우려와 달리 주월점 개점으로 인해 백운광장 인근 상권활성화도 가능하고, 지역 주민도 우선 채용하는 등 주민 친화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로 보내주세요"

전남교사들 광주 전출 경쟁률 10대 1

전입교사 기준 확정

전남교사들의 광주 전출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정원 배정 변경에 따라 전남 등에서 광주로 218명의 교사가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중등교원의 광주 전출 희망 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전출 가능자를 선발한 뒤 가산점 부여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 전출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다만 광주시교육청의 전입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서벽지 근무 교원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출 희망 접수를 다시 받기로 했다.

초등교원은 이번 주 내로 전출 희망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전입교사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전입배제 조건은 내년 3월 1일 기준 만 50세 이상 교사, 도서·벽지에서 근무했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등이다. 또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 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교사와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 관련 범죄, 학생체벌(폭력) 등 4대 주요 비리자는 징계 말소 후라도 전입이 안된다. 교감, 교장 자격이 있거나 연수 대상자도 배제되며 지병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서벽지 근무 교원이라도 가산점 혜택이 없는 1998년 1월 1일 이후 근무자는 전입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는 내년 3월1일자로 시행되고, 전입교사는 전남에서 초등 80명, 중등 110명 등 190명이며 나머지는 전북 21명, 부산과 제주가 4명과 3명 등이다.

중등은 과목별로 ▲국어 22명(전남 21, 전북 1) ▲영어 23명(전남 18, 전북 4, 부산 1) ▲수학 18명(전남 14, 전북 4) ▲체육 12명(전남) ▲도덕윤리 7명(전남) ▲일반사회 5명(전남 4, 전북 1) ▲역사 5명(전남 4, 전북 1) ▲화학 5명(전남 3, 전북 2) ▲생물 5명(전남 3, 전북 2) ▲지리 5명(전남) ▲물리 5명(전남) ▲지구과학 5명(전남) ▲미술 4명(전남) ▲한문 3명(전남 2, 전북 1) ▲음악 2명(전남 1, 전북 1) ▲기술 2명(전남) ▲가정 2명(전북 1, 부산 1) 등 17개 과목 130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생들 "우리가 독도지킴이"

80명 내일 탐방 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독도지킴이'를 자임하며 독도탐방에 나선다.

27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생 80명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민족 조선 1기 독도 지킴이' 행사를 연다. 이번 독도탐방은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의 허구성을 알리고 독도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킴이 골든벨과 백일장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 80명은 29일 조선대를 출발, 경북 울릉도 해상일주와 독도기념관을 관람한 뒤 마지막 날(31일) 독도탐방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재 총학생회장은 "이번 독도탐방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을 규탄하고, 학교의 소유권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구 경영진을 규탄함은 물론 해결 의지를 모으려는 자리"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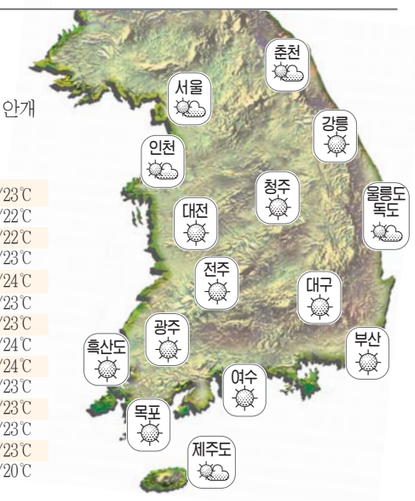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0분 / 해짐 17시 42분 — 달뜸 14시 32분 / 달짐 01시 08분

안개조심하세요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구름 조금	11/23℃
목 포	구름 조금	12/22℃
여 수	구름 조금	14/22℃
완 도	구름 조금	11/23℃
구 례	구름 조금	7/24℃
해 남	구름 조금	7/23℃
장 흥	구름 조금	7/23℃
고 흥	구름 조금	7/24℃
순 천	구름 조금	10/24℃
영 광	구름 조금	8/23℃
진 도	구름 조금	9/23℃
전 주	구름 조금	9/23℃
남 원	구름 조금	4/23℃
흑산도	구름 조금	15/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9:29 22:20	03:30 15:35
여수	05:12 17:50	11:09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목)	30(금)	31(토)	11/1(일)	2(월)	3(화)
날 씨						
최저/최고	12/23	12/22	12/19	9/15	4/11	3/12

광주여대 '공용자전거 시범대학' 선정

행정안전부는 27일 광주여대 등 전국 7개 대학을 '대학교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된 광주여대 등은 공용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0년 국비 1억원과 함께 자전거 100대를 지원받게 되며,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광주여대는 자체 추진 의지가 강한 점과 지하철(송정공원역)과의 연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상용직노조 5개 지자체와 임협 타결

광주·전남 상용직노조와 5개 기초자치단체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27일 동·남·북·광산구와 나주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남구청에서 협상을 갖고 지난 2008년 임금을 총액 대비 1.7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에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결하고, 2010년에는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임금협상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인상률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파행을 겪었다. /이종행기자 golee@

"벌교 30대 자진월북" 북한 조선중앙방송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강동림(30)씨라는 남한 주민이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방송은 강씨에 대해 "삼성 반도체 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하기 전까지 벌교읍의 어느 한 돼지공장(양돈장)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참은 "월북한 강동림이 2001년 9월18일부터 2003년 11월10일까지 이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2009년 9월12일 폭행사건 등으로 그해 9월25일 지명수배돼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